

2015 새 설계

이 용 부 보성군수

“농어업 예산 늘려 생명농업 육성... 녹차 해외시장 적극 개척”

“지역 농·어민의 실질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농·어업 예산을 45% 이상 확대하고, 전국 제일의 경쟁력을 갖춘 농·어촌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과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보성군은 올해 2015년도 예산 3600억여원 가운데 1000억여원을 농림어업 분야에 투자한다.

이용부 보성군수는 “권역별 지역특화품목을 육성하고, 협동조합 설립과 향토산업 육성 등을 지원하면서 친환경 자연농법을 새로운 성장기회로 삼아 생명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또 ‘녹차수도’ 보성의 명성에 걸맞게 녹차 해외시장 판로개척과 차 연관제품 개발, 보성녹차의 품질 고급화, 통합브랜드 구축 등 녹차의 소비시장 확대와 세계화에도 힘써 나갈 구상이다.

군은 지역 대표수산물인 꼬막과 키조개산업 발전에 힘을 기울인다. 내실있는 별고꼬막 종묘배양장과 중간육성장 운영, 수산물위판장·별고꼬막 유통센터 활성화를 비롯해 특량만 키조개 다변화 산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고품질 수산물 생산기반 확충을 통한 어민 소득 증대 등 어업을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갖춘 산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강 100세 시대에 맞는 ‘살맛나는 건강복지 실현’을 위해 행복택시 확대 운영 등 교통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 시책을 추진한다. 실내수영장 건립과 시니어클럽 설치, 부모님 건강재조방, 사계절 힐링 프로그램 등 다양

꼬막·키조개 산업 경쟁력 높이고 역사문화자산 발굴 관광상품화 일자리 공시제 통해 고용 확대

한 복지시책이 확대 운영된다.

군은 지역 역사문화자산 관광상품화에도 적극 나선다. 이 군수는 “누구나 보성의 역사와 문화, 맛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총무공 이순신 장군 유적복원 등 역사문화자산을 발굴해 관광상품화하겠다. 여차, 예당 간척지의 생태자원과 주변의 관광자원을 엮는 스토리텔링과 사계절 색다른 테마로 관광객에게 역사와 문화, 생태와 휴양을 선사하는 생태관광 1번지 도약의 원년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군은 교육부문에 대한 꾸준한 지원과 투자를 통해 ‘보성의 미래’인 인재양성과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에도 심혈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군수는 “보성군 장학재단 기금 목표액을 150억원까지 높여 명문 심화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교육 때문에 보성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과 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 수련원 및 천문과학관 운영 등 지역아동과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성 육성에 힘쓴다. 보성자치포럼, 정보화교육, 노인대학 운영 등 군민



2015년 주요 역점 사업은

- ▲희망과 행복을 기르는 생명농업 육성
- ▲건강과 활기를 나누는 생활복지 실현
- ▲역사와 문화, 생태와 휴양의 생태관광 1번지
- ▲지역인재에게 꿈과 희망, 군민에게 평생학습을
- ▲기업하기 좋은 원-스톱 일자리 행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사람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환경 만들기
- ▲참여와 소통으로 군민행복시대 구현

을 위한 교육시책도 꾸준히 실시해 삶의 품격을 높이는 평생학습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투자 유치 등 다양한 정책도 빠뜨릴 수 없다.

이 군수는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경제가 어렵고 투자여건이 불리한 지역여건 등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유치와 기업발굴을 위한 현장중심의 원-스톱 일자리 행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군은 지역 일자리 공시제를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26개 사업장 220명의 일자리 창출과 마을기업 4개소·사회적 기업 2개소 육성,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소규모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 활기찬 지역경제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또한 녹차류 보성 향토시장의 활성화와 보성

사랑 상품권 확대, 별고 5일시장 현대화사업 추진 등 시장과 연계한 다양한 관광상품 개발로 전통시장의 중흥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쾌적하고 건강한 녹차도시 구현을 위해 ▲보성읍·복내면소재지 종합 정비사업 ▲일림산권역·특량만권역·미령권역·예당권역 종합정비사업 ▲보성읍 보행환경개선 ▲보성읍 도시재생사업 유치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보성강·울어진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통한 생태계 보전사업과 농·어촌 상수도 확충, 농촌농업 생활용수개발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공급에 나선다. 살레지쿠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과 별고침수대응 하수도 정비사업을 벌여 주민 공중위생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게 된다.

이 밖에도 소통하는 위민행정, 현장행정을 실천하기 위해 ‘열린 민원실’과 ‘명예 민원심장제’를 운영한다. 보성군 750여 공직자들이 “군민이 군수이고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슴에 새기면서 군민을 섬기는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용부 군수는 “희망찬 새해가 주는 힘으로 용기와 자신감을 갖고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겠다”며 “녹차수도 보성의 힘찬 도약을 위해 군민 모두가 힘을 모으고 뜻을 모아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보성군 장애인 일자리사업 발대식

보성군은 지난 13일 보성군 장애인복지관(관장 운동호)에서 2015년 장애인 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일자리사업 참여자와 동료 장애인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사업 안내와 직장인의 자세와 친절교육, 안전사고 대처 및 예방법 등에 대한 기본교육도 함께 실시했다.

군은 올해 사업비 2억3500여만원을 투입해 60명의 장애인들에게 환경도우미와 건강도우미, 세탁 도우미, 홀몸장애인 안부 지킴이, 급식 도우미 등 일자리를 제공하는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펼친다.

장애인들은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서를 통해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지역사회에 봉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성군은 장애인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좀 더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인 복지시설과 서비스 인력을 확충하는 한편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통합을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장애인 복지업무도 계획해 추진하고 있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고흥군 현안 해결 위해 매주 2회 토론회 간부회의

고흥군이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는데 필수요건인 군정 주요현안사업 해결에 발벗고 나섰다.

고흥군은 행사성 보고 위주의 기존 간부회의 방식을 탈피해 주요 현안사업을 대상으로 19개 실과 소를 두 부류로 나눠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틀에 걸쳐 토론회 간부회의를 갖고 있다.

이는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주간별 토론회를 통해 추진사항을 매주 점검해 사업추진의 속도를 높이

고, 현안사업의 추진체계를 정립해 민선 6기의 새로운 변화를 촉진하고자 추진한 것이다.

고흥군 주요 현안사업은 신규사업이나 공약사항, 역점사업 등으로 이뤄졌으며, 시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도 포함시켜 사업추진의 적시성과 사업목표의 달성도 등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병중 군수는 주요 현안사업 첫 토론회 자리에서

“지난 민선 4, 5기동안 지역발전의 터를 다지고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앞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들도 많다”면서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민선 6기 남은 3년반의 기간동안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고흥군 관계자는 “간부회의 방식을 주요 현안사업 토론 방식으로 탈바꿈해 부서간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사업담당자들의 높은 관심도 제고를 통해 현안·전략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곡성군, 자매도시 의정부 방문 화재피해 위로·이불 100채 전달



곡성군은 최근 아파트 대형화재로 많은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한 자매도시인 경기도 의정부시에 위로품으로 이불 100채를 전달했다.

김신남 부군수는 지난 14일 이재민대피소가 설치돼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 경의초등학교 체육관을 방문해 손경식 의정부시 부시장을 만나 “곡성군에서 준비한 구호물품이 하루아침에 보급자리를 잃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위로품을 전달하고 이목을 나누었다.(사진)

한편 곡성군과 의정부시는 지난 2010년 11월 자매결연을 맺고 도·농간 활발한 교류활동을 해오고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고흥학사’ 신규 입학생 24명 모집...21~30일

고흥군이 서울시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공공기숙사내 ‘고흥학사’ 신규 입학생 24명(남자 14, 여자 10명)을 21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공공기숙사는 서울시와 고흥군을 비롯한 8개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생 사업의 하나로 서울소재 대학교에 진학하거나 재학중인 학생들의 주거난 해소와 면학 편의제공을 위해 지난해 3월 개관했다. 지하 1층·지상 7층 규모로 준공돼 총 382명

(192실)을 수용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고흥출신의 학생이 사용하는 ‘고흥학사’에는 20실에 40명이 입실하게 되며, 이번 모집으로 기존 입학생 16명을 제외한 신규로 24명을 선발한다.

지원자격은 본인 또는 부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수도권 소재 2년제 이상 대학교의 임·재학생(복학생 포함) 및 대학원생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학업성적과 생활정도 등을 기준으로 선발할 예

정이다.

‘고흥학사’는 2인용 원룸형태로 공부방과 화장실, 샤워실을 갖추고 있다. 공부방은 사생활 보호와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인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입학생과 학부모의 편의를 위해 도서관, 컴퓨터실, 체력단련실, 게스트룸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한편, 고흥학사 입학생은 고흥군이 1인당 연 250만원씩 기숙사 운영비를 지원함에 따라 식비를 제외한 월 12만원의 생활비만 부담하면 된다.

/고흥=주각중기자 gju@

200% 할인

부동산 담보대출 특별 한시판매

최저 연 3.3%~

상기 금리는 APT담보대출 기준이며, 담보물건 및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근저당권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근린상가 단독주택 나대지 원룸**

담보 비율 : 최대 70%  
최저 연 3.8%~

**신용대출 (급여소득자) (연금수급자)**

대출한도 : 최대 5,000만원  
상환방법 : 원금균등상환  
대출기간 : 최대 5년  
연금리 : 최저 7.0%

빛고을새마을금고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5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7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

